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0 No.3 Serial No.86 _ 2011. 06

펠릭스 누스바움 박물관의 건축 개념 구현 방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mbodiment of Architectural Concept in Felix Nussbaum Museum

Author 정태용 Chung, Tae-yong / 정회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 of embodying architectural concept in Nussbaum Museum for complementing present abstract and generalized research.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a certain concept and Nussbaum museum through analyzing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searching its principles by concrete application of concept. The Architectural concept "Museum without exit", which Libeskind applied to Nussbaum Museum, is based on the dramatic life of Jewish painter Felix Nussbaum with relation to Holocaust, physical background of site and features of program, Libeskind Applied his architectural concept from the beginning to the most parts of the museum. His new museum subverts notions and logic of general features of existing museums. Libeskind's architectural concepts are especially applied to site plan, massing, circulation and spatial configuration. "Museum without exit" creates labyrinth like circulation based on stories including Nussbaum's life, his painting tendency and circumstances of those days. It also realize sensuous space through spatial shape and light control. Although some critics criticize that this museum is not suitable for paint collection because of overwhelming strength of architectural space. However, considering this museum's function of a kind of Holocaust museum beyond personal art gallery, Libeskind's 'museum without exit' shows effective realization of architectural concept for Jewish painter Felix Nussbaum's museum.

Keywords 누스바움, 박물관, 개념, 구현
Nussbaum, Museum, Concept, Embodi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은 난해한 형태와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석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리베스킨트 건축에 대한 기존 국내 연구는 대부분이 현상학이나 해체주의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 관념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1] 개괄적이고 보편적 특성 파악을 중시하는 이러한 접근은 그 장점에도 불구하고 개별 작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을 갖는다. 그 결과 리베스킨트의 특정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도와 개념을 설명하기에 난점을 갖는 방법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리베스킨트 자신이 제시한 건축 개념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펠릭스 나스바움 박물관은 독일의 소도시 오스나브뤽에서 태어난 유태인 화가 펠릭스 누스바움(Felix Nussbaum)의 작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누스바움 박물관은 자신의 대표작인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이후의 작업이기는 하지만, 리베스킨트에게 있어서는 실제 건축물로 구현된 최초의 작업으로 건축 개념의 적용과 실현화 과정에 있어서 베를린 박물관에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또한, 누스바움 박물관은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대규모인 동시에 다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보다 리베스킨트의 건축 접근 방식과 그 구현 방법을 알아보기에 용이

1) 리베스킨트 건축에 대한 주요 국내 연구로는 '정인하·김홍수,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 공간개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지 2002', '권태일·이동언, '근원적 다양성'으로 본 '접힘의 건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04', '이도희,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적 사고와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4', '임성섭·이호중, 현대건축 공간에 나타난 다성음악적 비례에 관한 연구, 2005', '안지혜·이동언, 메를로-퐁티의 '살'로 본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공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 등을 들 수 있다.

하며 리베스킨트의 유태인 박물관 연작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누스바움 박물관 자체에 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리베스킨트 건축에 대한 기존의 관념적이고 포괄적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건축가 자신이 언급한 건축개념을 중심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는가와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누스바움 박물관의 독특한 형태 및 공간과 건축개념과의 연계를 추적하여 그 상관성을 고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며, 개념 적용에 의해 나타난 특성을 찾는 것이 이차적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누스바움 박물관 디자인에 있어서 리베스킨트가 제시하고 적용한 특정 건축개념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연구의 범위를 건축 개념 자체뿐만 아니라 그 형성 배경까지로 확대하여 우선 건축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을 크게 인문적, 물리적 요소로 구분하여 고찰한다. 인문적 배경으로는 전시의 주 대상인 누스바움의 작품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각각 누스바움의 생애, 화풍 및 이들에 영향을 미친 시대 상황으로 구분한다. 또한 건축 개념의 물리적 배경은 오스나브뤽을 중심으로 누스바움과 관계된 도시들, 부지 환경과 주변 건물과의 영향, 수용 프로그램 등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영향 정도를 살펴본다. 이러한 건축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박물관에 적용되었는가는 배치, 동선, 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배치에서는 매스의 배치 방향과 매스 구성에 관련된 특성 및 외부 공간 구성을, 동선은 출입 및 관람 동선을 중심으로 건축개념과 공간 구성과의 관계 하에서 고찰한다. 공간은 건축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형상, 분위기, 빛 사용 특성 등을 나타내었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개념 적용과 이에 따른 건축 개념 적용의 분석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건축 개념 적용 분석틀

배경	배경내용	건축개념	분야	주요 적용 부분
인문적 배경	시대상황	출구 없는 박물관 (museum without exit)	배치	배치방향, 외부 공간 구성 매스구성, 규모, 형상, 기능 성격
	누스바움 생애			
	대표작과 화풍		동선	출입동선, 관람동선, 동선 구성과 방법, 전시공간과 관계
물리적 배경	관련 도시			
	부지환경		공간	공간 형상, 규모, 성격별 적용내용, 분위기, 빛 사용특성
	프로그램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문헌 조사를 통해 건축 개념과 형성 요소를 조사하고, 주요 적용 내용은 도면과 사진 및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정리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건축 개념의 구체적 적용을 통하여 나타난 건축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리를 찾아봄으로써, 건축 개념이 누스바움 박물관에 미친 의미를 고찰하는 방식을 취한다.

2. 누스바움 박물관의 배경

2.1. 인문적 배경

(1) 시대 상황과 펠릭스 누스바움의 생애

누스바움 박물관은 문자 그대로 화가 펠릭스 누스바움의 작품을 위한 미술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누스바움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펠릭스 누스바움은 1904년 12월 11일 오스나브뤽에서 유태인 중류계급 상인가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함부르크에서 미술의 기초를 배운 후, 1923년 베를린으로 이주하여 세자르 클라인(Cesar Klein)의 제자가 되었으며, 1928년에는 한스 마이트의 매스터 클래스 학생으로 선발되었다. 누스바움은 1930년대 초기에 이미 베를린에 거주하는 젊은 예술가 세대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2] 1932년에는 '로마 독일 아카데미(Rome Deutsche Akademie)'의 장학금을 받고 미술 공부를 지속하였다. 1933년 나치 정권의 득세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34년 스위스로 이주하였다. 이후 누스바움은 스위스를 떠나 벨기에의 브뤼셀로 정착한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 비극은 1940년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3] 누스바움은 이 시기 독일의 "적대적 외국인"으로서 벨기에 인들에게 체포되어 프랑스 남부의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이후 탈출하여 1942년 다시 벨기에로 돌아와 숨어 지냈다.[4] 그러나 1944년 독일군에 체포되어 마지막 강제 열차로 아우슈비츠로 이송된 후 그곳에서 사망한다.[5]

이렇듯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황과 누스바움 자신의 고달픈 인생 역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꺾이지 않은 예술 열정은 리베스킨트에게 크게 영향을 미쳐 누스바움 박물관의 건축개념 형성에 반영되었다.

(2) 펠릭스 누스바움의 대표작과 화풍

펠릭스 누스바움의 예술 작업은 홀로코스트의 와중 속에서 한 개인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를 제공한다. 리베스킨트는 누스바움의 회화를 "유럽 문화와 살아남은 유태인을 상징하는 예술로서, 역사적 진술을 고양시키는 살아있는 문서"[6]로 보았다. 누스바움은

2) 특별히 1930년대 베를린의 예술상황을 나타낸 그의 회화 "Der tolle Platz"는 그의 초기 성공에 기여했다.

3) Sonja Longolius, The Museum 'Without an Exit' - Daniel Libeskind's Felix-Nussbaum-Museum in Osnabrück, p.3

4) 1933년 탈출 이후 지속적인 발각의 두려움 속에서 모든 희망을 버린 듯이 보였지만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작업을 지속했고 "만일 내가 죽게 된다면, 나의 그림을 사라지게 하지 말고 전시해 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5) Sonja Longolius, Op. cit., p.3

그림을 통해 1차 세계대전 이후 수 십 년간의 경험을 기록했고 독일 나치의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압당하는 시대 및 자신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초기 작업에는 유태인에 관한 주제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는 누스바움이 독일에 동화된 개종 유태인으로서 키워졌기 때문이다.[7]

1935년부터 그의 그림에는 불안감과 점점 극심해지는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나치의 압박이 본격화된 1940년부터는 홀로코스트의 위협을 받는 예술가의 정신적 황폐함이 담겨 있다.[8] 나스바움은 도피기간 중에도 상당한 양의 회화를 남겼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저항의 행위였고 또한 오랜 동안 생존에 필요한 힘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누스바움은 "예술은 스스로의 경험을 분석하는 매체"라고 자신의 가장 유명한 회화 '유태인 증명서가 있는 자화상(Selbstbildnis mit Judenpaß, 1943)'의 설명에서 밝히고 있다.<그림 1 중앙> 또한 마지막 작품인 '죽음의 승리(Triumphant of Death, 1944)'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예감하여 자신의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과 집단 수용소의 고통을 보여준다.<그림 1 우측>

이렇듯, 누스바움의 그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베를린에서의 급속한 성공, 나치의 위협과 방향상실의 피난, 전쟁의 위험과 폭격, 강제 수용소의 두려움, 지하의 고립과 은신처, 그리고 나치 정권에 의한 유럽에서의 유태인 소멸과 고통을 형상화하고 있다.[9] 유럽에서 누스바움과 같이 유태인 홀로코스트를 예술적으로 기록한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의 그림들은 예술적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도 평가받고 있다.

<그림 1> 누스바움의 대표작: 좌측부터 "Orgelmann"(1942/1943), "Selbstbildnis mit Judenpaß"(1943), "Triumphant of Death(1944)"

2.2. 물리적 배경

(1) 관련 도시와 부지 현황

누스바움은 길지 않은 생애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업과 도피의 이유로 많은 도시를 전전했다. 태어나 청소년기까지를 보낸 오스나브뤽을 시작으로 함부르크, 베를린 및 로마는 학업과 연구를 위해 거주했던 도시이고, 취리히, 브뤼셀, 낭뜨는 나치를 피해 이주했던 도시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거처는 아우슈비츠였다. 리베스킨트는 누스바움이 전전했던 도시들을 참조점으로 삼아 오스나브뤽을 중심으로 이들을 연결하여 매스, 천창, 부지 내 도로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사용하였다.

박물관 부지는 로테르(Lotter) 가로와 헤게르-토르-발(Heger-Tor-Wall) 가로가 만나는 삼거리의 남측에 헤게르-토르-발 가로를 따라 길게 형성된 블록이다. 원래 이 부지는 중세 도시인 오스나브뤽의 성곽 해자 부분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박물관 공사 중 17세기 석조 아치교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곳에는 기존의 오스나브뤽 문화역사 박물관[10]과 박물관의 별채로 사용되는 2개의 빌라가 있다. 이중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나치의 본부로 사용되었던 빌라 쉴릭커는 현재 생활 박물관인 '기억의 집'으로 사용된다. 기존 건물들이 헤게르-토르-발에 면하고 있으므로, 박물관은 기존 건물의 후면에 위치하여 인지가 쉽지 않다. 대신 로테르 가로에서는 시야와 접근이 용이하다. 사실 박물관의 계획 대지에는 1938년 히틀러의 악명높은 크리스탈나흐트(Kristallnacht)[11] 때 전소된 유태인 교당이 위치했었다.[12] 리베스킨트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여 박물관 매스 중 누스바움 하우스를 바로 이곳에 배치했다.

(2) 프로그램

누스바움 박물관은 기존의 '문화역사 박물관'의 증축으로 계획되었으나 실제 용도는 화가 펠릭스 누스바움의 작품의 전시관이다. 여기에는 시기별로 구분된 작품의 전시와 아울러 복원품 및 수장고 등이 포함되어있다.

박물관에는 회화뿐만 아니라 그래픽 등 누스바움의 모든 작업을 수집 보관하고 있으므로 전시이외의 연구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부속시설로는 도서관, 카페와 행정실 등이 위치한다. 또한 기획전시용 갤러리가 마련되어 복원이 완료된 누스바움의 미공개 작품을 전시하거나, 별도의 기획 행사를 유치한다. 누스바움 박물관에 포함된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2> 누스바움 박물관의 주요 기능

동명	기능
누스바움 하우스	영구 컬랙션, 그래픽, 아카이브 자료, 기획전시용 갤러리, 도서관, 카페
누스바움 코리도	피난기간 중 작품 전시 갤러리
누스바움 브리지	미확인 작품 중 복원품 소장 및 전시

6) http://www.daniel-libeskind.com/projects/show-all/felix-nussbaum-haus/

7)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화 "Die beiden Juden"는 "자신의 유태-문화적 정체성의 보존과 동화간의 내부 갈등"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드러낸다. Inge Jaehner, ,Wenn ich untergehe, lasst meine Bilder nicht sterben' Felix Nussbaum - Leben und Werk, in: Vernissage - Die Zeitschrift zur Ausstellung 16, 1999, p.16

8) Hugh Pearman, Walls hold back the forgetting, The European, 1998. 7. 27

9) 이 그림은 당시의 유태인 실상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으로 인정되어 독일의 학교 교과서에 자주 실렸다.

10) 1933년 나치 당 본부로 사용되었다.

11) 독일 내 유태인에 대한 테러와 약탈이 이루어진 사건. 유태인 상점과 교당이 불에 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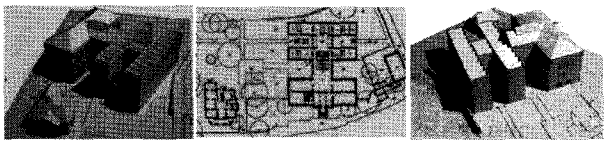
12) Hugh Pearman, op. cit.

2.3. 건립과정

1970년대 초 독일 오스나브뤽 시[13] 소재 '문화 역사(Kulturgeschichtliches) 박물관'은 펠릭스 나스바움의 작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14]를 수행했다. 그 결과 '누스바움 컬렉션'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는 누스바움의 조카인 모제스 나스바움(Augustes Moses-Nussbaum)의 역할이 컸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브뤼셀에 남아있던 100여점이 넘는 누스바움의 그림들이 법적으로 오스나브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후 오스나브뤽 시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컬렉션은 180점이 넘게 확대되었으며 오스나브뤽을 시작으로 전 세계의 도시에서 누스바움 전시회가 개최되었다.[15]

1983년 이미 '문화 역사 박물관'이 나스바움의 작품을 더 이상 소장할 수 없을 정도로 컬렉션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또한 그 중요성이 예술적,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판명되었기 때문에 오스나브뤽 시는 펠릭스 나스바움 박물관의 설립을 결정하였다.[16]

1994년 12월 현상설계 공모가 이루어졌는데,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응모한 296점의 작품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세계 건축가들의 관심을 보여준다. 리베스킨트가 라인더스(Reinders & Partner Lange)와 협동작업으로 당선하였고, 2등은 밀라노의 그라씨(Giorgio Grassi), 3등은 오스나브뤽 출신의 그라스호른(Burkhard Grashorn) 이었다. 누스바움 박물관은 1998년 완공되어 같은 해 7월 16일에 개관하였다.[17] <그림 2>



<그림 2> 현상설계 참여안 중 그라씨 2등안, 기존 박물관의 후면에 같은 크기로 증식하는 방식으로 리베스킨트 안과는 상이한 디자인 접근을 보여준다.

3. 누스바움 박물관의 건축개념 구현방식

3.1. 건축개념: '출구없는 박물관'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사이를 이어 주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을 성공적으로 매개하는 것이 바로 박물관 건축이다.[18] '비극으로 마감된 오스나브뤽 출신의 유태인 화가의 절망, 현실, 열정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을까?'[19] 리베스킨트의 누스바움 박물관에 대한 건축개념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리베스킨트는 디자인 초기 단계부터 이 건물의 개념을 '출구 없는 박물관(museum without exit, 독일어로 'Museum ohne Ausgang)'[20]이라고 불렀다.

베를린에서의 이른 성공, 스튜디오 화재로 인한 그림 소실, 히틀러의 권력 장악에 따른 로마 독일 아카데미의 폐쇄, 오스나브뤽으로 부터의 영원한 추방, 프랑스와 벨기에를 통한 피난의 허무함, 그리고 마지막 추방과 아우슈비츠에서의 사망과 같이 화가 누스바움은 탈출구가 없는 극적인 생애를 살았다.[21]

리베스킨트는 이러한 누스바움의 비극적인 생애와 박물관 간의 상호 관계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는데, 리베스킨트의 접근 방법은 오스나브뤽 자체의 역사와 이 곳 출신의 유태인 예술가를 독일의 이름으로 자행된 유태인 대학살의 상징으로 다시 연결하는 것이었다.[22] 이것은 단지 과거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누스바움 박물관은 리베스킨트가 지적하듯이 기억과 상실을 담고 있지만 미래에 관한 건물이다.[23] 과거 사실에 대한 "망각에 대항하는 공간(Rooms against forgetting)"[24]으로도 언급되는 누스바움 박물관의 건축 개념에 대해 리베스킨트는 "박물관은 누스바움의 생애에 드러난 치명적 요소와 막다른 끝에 대한 회상이다. 박물관 공간과 그 역사에 우리 자신의 방향을 정하고 다시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그러한 막다른 길에 대한 투사와 접근"[25]이라고 밝힌다. 그 결과 통로의 갑작스런 단절, 예상할 수 없는 교차와 막다른 부분 등 박물관을 위한 공간 구성, 기하학 그리고 프로그램 상 계획의 모든 요소에는 펠릭스 누스바움의 생애가 반영되어 있다.[26]

이렇듯 리베스킨트는 '출구 없는 박물관'이라는 건축개념을 사용하여 프로젝트가 내포하는 전체적인 역사적 상징성을 건축물이라는 또 다른 실체로 변환시켰을 뿐만

13) 8세기 샤를마뉴 대제에 의해 건설된 독일의 중세도시로서, 로우어 색스니 지방에 위치하며 인구 16만 명의 소도시이다.
14) Sonja Longolius, Op. cit., p.5
15) 1985년 뉴욕 유태인 박물관이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회고 전시회를 열기 이전까지 누스바움은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었다. J. Young, Daniel Libeskind's New Jewish Architecture, Daniel Libeskind and Contemporary Jewish Museum, Rizzoli, 2008, p.51
16) Sonja Longolius, Op. cit., p.5
17) 총 예산은 820만 달러였고 건물에 450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18) Sirefman, Susanna, Foremed and Forming: Contemporary Museum Architecture, Daedalus, 1999 Summer, p.319
19) J. Young, Op. cit., p.51
20) 1994년 박물관 현상에서 리베스킨트가 제출한 작품의 제목이자 건축개념이기도 했다.
21) Daniel Libeskind, Op cit., 2008, p.83
22) J. Young, Op. cit., p.51
23) "누스바움은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작업이 미래와 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의 창조적 작업을 통하여 그가 구원을 이루었다고 믿는다." Hugh Pearman, Op. cit.
24) "the forgetting"은 독일어 "Das Vergessen"으로서 홀로코스트와 같이 2차 세계 대전의 주요 사건에 대한 망각을 일컫는다.
25) Libeskind, Daniel. The Space of Encounter, Thames & Hudson, 2001, p.92
26) http://www.daniel-libeskind.com/projects/show-all/felix-nussbaum -haus/

아니라, 공간 특성을 이용하여 누스바움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관람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다.

3.2. 배치를 통한 개념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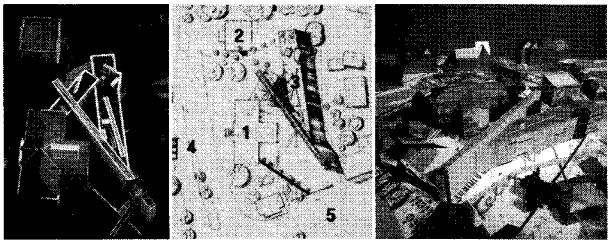
리베스킨트는 배치에 있어서 사용한 디자인 전략은 2가지로서 하나는 기존 건물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누스바움의 생애와 관련된 것이다.

기존의 문화 역사 박물관과 민속 문화 자료를 소장한 빌라 쉴릭커의 배경[27]과 같이 뒤로 후퇴시켜 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는 깊숙이 연결되도록 고려하였다. 그 결과 자체의 형태와 기능을 통하여 누스바움 하우스는 오스나브뤽과 자체의 잃어버린 역사를 연결하기 위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방법으로 빌라 쉴릭커와 문화 역사 박물관을 흡수하고 통합한다.

우선 리베스킨트는 누스바움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들을 역사의 본질적 지점으로 선정하고 이를 공간적 기억으로 전환시켜 계획 대지에 연결시켰다. 구체적으로는 박물관을 구성하는 3개의 매스를 "오스나브뤽, 벨기에 브뤼셀과 아우슈비츠 등을 연결하는 참조 축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배치했다. 이외에도 각기 다른 각도를 보여주는 선형 천창, 접근로 등은 모두 누스바움과 관련된 도시를 지시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박물관은 누스바움 생애의 일정한 움직임과 증가하는 방향상실을 상징화[28]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대지는 오스나브뤽 뿐만이 아니라 다시 다른 도시들과도 연결되어 새로운 지형의 확장을 만들어낸다. 전체적인 배치에서 각 매스들은 상호 대위법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때 박물관의 3개 매스는 서로를 결합하는 건축적 '힌지'로 작용한다. 박물관은 불가능한 운명에 대한 증명일 뿐만 아니라 과거와 가능한 미래 간의 조우를 위한 공간으로 고안되었다.[29]

리베스킨트는 헤게르-토르-발 가로에서 진입로를 두고 선형 매스를 관통시킨 후 그 교차점에서 좌측으로 건물의 입구를 두었다. 이 진입로는 파괴된 유태인 교당으로의 통로를 상징적으로 되살린 것이다. 도로와 어긋난 진입로 축은 인근 철도 라인에 맞춘 것으로서 강제 추방의 기억을 암시한다.

누스바움 박물관의 3개 매스가 만나 형성된 삼각형은 작고 조용한 중정[30]으로서 거의 대지에 닿을 듯 한 브리지 하부 공간을 통해 개방되어있다.<그림 4 중앙 및 우측사진> 이렇듯 비워진 외부 공간은 누스바움의 순교자적 생애가 보여주는 '존재의 상실(absence)'를 나타내며, 일종의 빈 캔버스로 인식되어 그 자체가 누스바움의 작품을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개방성과 불완전함을 상징한다.[31]



<그림 3> 좌측부터 항공사진, 배치도, 현상 모델, 1. 문화 역사 박물관, 2. 빌라 쉴릭커, 3. 누스바움 박물관, 4. Heger-Tor-Wall 5. Lotter Strasse

<그림 4> 누스바움 박물관의 외관: 주 접근로에서의 광경, 좌측 문이 주입구, 빌라에서의 광경, 중정에서 브리지를 바라본 모습

3.3. 공간의 성격에 따른 개념 구현

누스바움 박물관에는 상설 및 기획 전시실, 영사실, 강의실, 카페테리아, 도서관 등이 있고, 이외에 특별 수장고, 목공실 및 행정실이 위치한다. 리베스킨트는 자신의 건축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 기능을 각기 다른 성격을 갖는 3가지의 매스에 수용하고, 각각을 '하우스(house)', '코리도(path)', '브리지(bridge)'라고 명명했다.

(1) 누스바움 하우스(Nussbaum House)

이중 '하우스'는 가장 큰 매스로서 목재로 덮여있고 주기능은 전시공간이다. 강의실, 도서관, 카페 등 대부분의 부속 기능도 갖고 있다. 하우스의 1층 전시실에는 1920 - 30년대에 걸친 누스바움의 초기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2층은 기획 전시실로서 사용된다.

누스바움 하우스는 기다란 직육면체의 볼륨이 선형 매스인 누스바움 코리도 매스에 의해 끝 부분이 잘려진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단순한 볼륨 구성이다. 그러나 내부는 다양하고 역동적 공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1층 전시실은 부속공간과의 공간 분할을 통하여 비틀어진 사각형 형태로 변환되며 여기에 쐐기형의 계단실, 옷 보관실 등이 위치하여 공간에 긴장감을 부여한다. 크지 않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평행하지 않은 각 선들은 투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 모두는 누스바움의 생

27) "나는 초기에 사람들이 건물이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이 거의 주목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백과도 같은 것이다. 시 당국은 나에게 커다란 상징을 세우기 원했지만 나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아이디어의 일부는 건물이 뒤로 물러서게 한 후 여러분이 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Hugh Pearman, Op. cit.에서 재인용

28) http://www.daniel-libeskind.com/projects/show-all/felix-nussbaum-ha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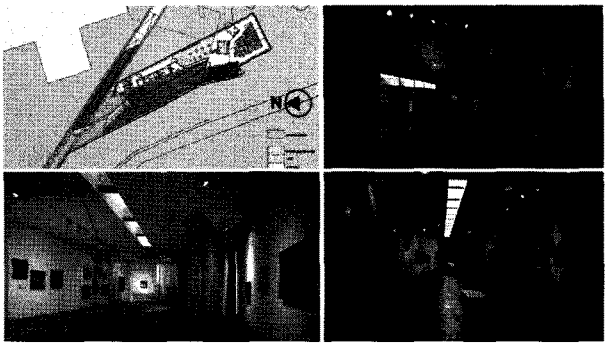
29) Daniel Libeskind, Op. cit., p.83

30) http://www.daniel-libeskind.com/projects/pro.html?ID=4#more

31) ttp://www.daniel-libeskind.com/projects/show-all/felix-nussbaum-haus/

애를 반영한 '출구 없는 박물관'의 건축개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1920-30년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누스바움의 생애 중 가장 평안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30년대 중반부터는 고난의 시대로 진입한다.

리베스킨트는 이러한 조건을 하우스 공간 구성에 반영하였으며 그 결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예각의 볼륨들이 공간에 나타나는 구성을 의도하였다. 계단실은 투시도 효과의 의도적인 왜곡을 계산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1층의 다양한 개구부와 2층의 선형 천창은 벽과 천장의 정형성을 혼란시키는 동시에 예상하지 않은 빛과 공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5> 누스바움 박물관 내부 공간: 상부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하우스1층 평면, 도서관 측에서 바라본 하우스1층, 하우스 2층

(2) 누스바움 코리도(Nussbaum Corridor)

누스바움 코리도는 다른 2개의 볼륨을 가로질러 관통하는 선형의 콘크리트 박스이다. 폭이 좁고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길고 어두운 방의 특성을 갖는다. 좁고 길게 형성된 천창은 2층에 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2층 바닥에 형성된 철제 그레이팅을 통해 1층에도 빛을 공급한다. 누스바움 코리도는 전시 공간인 동시에 일종의 직선형 경사로의 성격을 띠며 중간층에 형성된 누스바움 브리지를 2개 층에 걸쳐 연결한다. 길고 험난했던 누스바움의 말년을 상징하는 이 코리도는 내부 폭이 단지 1.7m으로서, 2차 세계 대전 중 나치를 피해 브뤼셀의 작은 다락에 숨으면서 작업했던 누스바움의 밀실 공포증을 자아내는 공간을 상기시킨다.[32] 도피 시절 누스바움은 자신의 그림을 보기 위해 뒤로 물러나 서 있을 수도 없는 작은 방에서 거의 정신착란의 상태로 작업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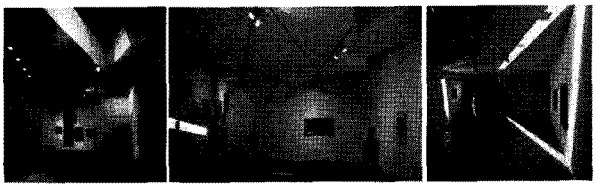
누스바움 코리도는 건축개념인 '출구 없는 박물관'이 가장 잘 나타난 공간으로서 좁은 공간과 희미한 빛을 통하여 미래가 없는 작가의 정신 상태와 열악했던 물리적 조건을 나타낸다. 비록 측벽 면에 형성된 개구부를 통해 누스바움 브리지와 연결되어 있으나, 코리도 내부에서는 인지되지 않고 직선 코리도의 단부는 'X'표시가 있는 문의 형태로 닫혀져 출구가 막혀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6> 누스바움 코리도: 좌측부터 2층 평면, 브리지 측 접근 사진

(3) 누스바움 브리지(Nussbaum Bridge)

누스바움 브리지는 기존 박물관과 박물관의 나머지 2개 매스를 연결하는 직육면체의 볼륨이다.

누스바움 브리지에서는 최근에 발견된 누스바움의 회화를 전시하는데 전시 공간은 누스바움 코리도로부터 연결되는 중간층 등 2개 층에 걸쳐 위치한다. 이러한 누스바움 브리지는 단순히 건물들의 물리적 연결을 넘어 과거와 미래의 시대적 연결을 상징한다. 즉 외관을 넘어 옛 것과 새 것 즉 역사적인 것과 미학적인 것 간의 실제적인 통합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34]



<그림 7> 누스바움 브리지 1층, 1층 부분, 2층

누스바움 브리지의 공간은 박물관의 다른 매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단순한 평면 형상에 비하여서는 1층(외부에서는 중간층)의 천정 면 파임과 수평으로 좁고 길게 형성된 개구부는 공간에 변화를 제공하는 요소이다. 준다. 2층에서는 가늘고 긴 천창과 측벽의 사선형 개구부를 통한 빛이 공간에 시간에 따른 변화감을 준다.<그림 7 우측사진>

누스바움 하우스와 누스바움 코리도에 적용된 '출구 없는 박물관'의 개념이 주로 누스바움의 생애에 근거하고 있는 반면, 누스바움 브리지는 누스바움 사후의 문제들 예를 들어,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과 화해 그리고 미래의 방향등을 다루고 있다. 즉, 누스바움 코리도가 상징하는 암울한 과거에서 누스바움 브리지와의 연결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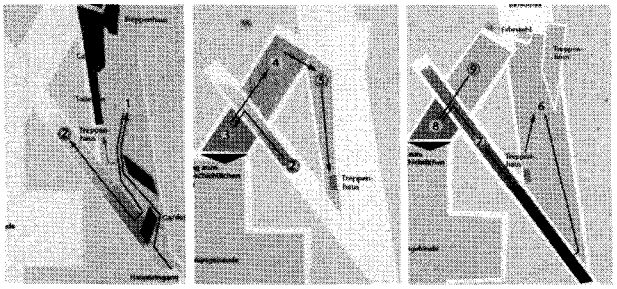
3.4. 동선을 통한 개념 구현

(1) 동선진행

동선 진행은 매스구성과 달리 좀 더 복잡하게 진행된다. 진입은 누스바움 코리도로 명명된 콘크리트 매스의 분리된 부분을 통해 시작되지만, 곧 콘크리트 벽에 의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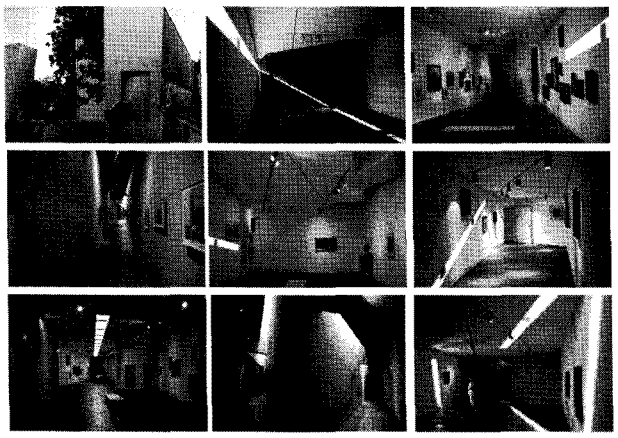
32) Sirefman, Susanna, Op. cit., p.312
33) Daniel Libeskind, project Description, Studio Daniel Libeskind, 1995
34) J. Young, Op. cit., p.52

막히므로 '하우스'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일단 방문객들이 하우스 내부에 들어서면, 수직의 입구 볼륨과 응접기능을 갖는 볼륨과 만나고 이를 돌아서야만 주 전시공간이 나타난다. 전시공간은 일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다시 되돌아 나와 '코리도'을 이용하여야 한다.<그림 8 좌측 ①, ②> 강한 방향성을 갖는 '코리도'는 '브리지' 매스를 관통하지만 끝은 막혀있기 때문에 좌측 혹은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좌측에서는 기존의 문화역사 박물관과 연결되고, 돌아 나오면 '브리지'의 전시공간을 지나 다시 '하우스'로 진입할 수 있지만 좁고 긴 코리도를 통해 계단과 만나게 되며 계단을 이용하여 '하우스'의 2층으로 진입한다. <그림 8 중앙 ③, ④, ⑤>



<그림 8> 동선: ① 하우스1층, ② 코리도 1층, ③, ④, 브리지 1층, ⑤ 하우스 중간층, ⑥ 하우스 2층, ⑦ 코리도2층, ⑧, ⑨ 브리지 2층

'하우스'의 2층 공간은 박물관의 가장 큰 전시공간으로서 이를 관람하면 '코리도'의 2층 공간으로 진입한다. 양측면이 가로 막힌 이 '코리도'를 지나 '브리지'에 도달하면 또 다른 전시공간과 만나게 된다. <그림 8 우측 ⑥, ⑦, ⑧, ⑨>



<그림 9> 동선 진행
상단 좌측부터 진입로, 입구, 하우스 1층 입구, 하우스 1층 전시실
중단 좌측부터, 코리도, 브리지 1층, 브리지 1층 전시실
하단 좌측부터, 하우스 2층, 코리도 2층, 코리도 램프 하단, 하우스 2층

(2) 동선을 통한 개념구현

'출구 없는 박물관'의 개념은 관람객에게 편안한 순환동선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스바움 박물관의 독특한 동선은 당시 시대 상황과 누스바움의 개인 역정을 반영한 건축개념에 기인한다. 일반 박물관에서는 유연하고 원활한 동선 구성이 중요하지만 나스바움 박물관 동선의 경우는 부분적이고 단속(斷續)적이다. 우선 동선 구성 자체가 곡선이 아니라 각이 지거나 동선의 단부를 막아 돌아나오게 하는 등 의도적으로 불편함과 불안감을 조성한다. 또한 각 전시 공간 역시 건축가의 의도에 따라 크기, 형상, 높이가 다르게 되어있으며 동선 역시 관람자의 이동을 의도적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누스바움 코리도'를 통한 동선은 좁고 긴 공간의 형상을 통해 속도를 높이지만 그 단부는 막다른 골목의 형상을 띰으로써 탈출구가 없는 예술가의 고뇌와 당시의 작업 환경을 반영한다. 박물관의 관람 순서인 하우스, 코리도, 브리지 순으로 연결되는 내부 동선과 함께 박물관의 외부 표피 또한 명확한 메시지를 제공하는데, 각 매스에 사용된 재료인 하우스(목재), 코리도(콘크리트), 브리지(아연)로의 변화는 누스바움의 생애를 반영한 것이다. 즉 보호받은 유년기에서 추방의 시기와 아우슈비츠에서의 폭력적인 죽음에 이르는 괴로움을 나타낸다.

리베스킨트는 이러한 동선 구성을 통하여 누스바움 뿐만 아니라 당시 오스나브뤽 지역에 거주했던 모든 유태인의 생활을 반영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35] 즉, 암울한 시대에 탈출구가 막힌 유태인들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듯 누스바움 박물관의 내부 동선은 일종의 미로과 같이 구성되며, 많은 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되어 있어, '출구 없는 박물관'이라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3.5. 건축개념 구현에 의해 나타난 특성

(1) 기존 박물관 체계의 파괴

현대의 박물관은 사회의 반영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리베스킨트는 '출구 없는 박물관'의 개념을 통하여 "명상의 전당(Temples of Contemplation)[36]"이라는 박물관의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했다. 누스바움 박물관은 연속적인 동선 순환체계, 관람에 적절한 전시공간의 폭과 높이, 균일한 조도, 쾌적한 관람환경 등 박물관의 기본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내부 전시실들은 상호 필요에 의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막다른 곳으로 관람자들을 이끈다. 다른 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등 순환과 연속이라는 일반적인 박물관의 법칙을 파괴한다. 노출 콘크리트의 바닥은 의도적으로 평평하지 않게 조성되어 있고, 대조적인 재료의 사용, 개구부 및 조명의 대각선적 배열, 천정과 바닥의 균열, 심한 예각의 계단실 등은 빈벽과 교차를 통해 파편과 비정위의 감각을 만들어내며

35) http://www.daniel-libeskind.com/projects/show-all/felix-nussbaum-haus/

36)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 위주의 정적(static)인 박물관을 일컬음

빈 벽, 막다른 통로, 어두운 코너를 만나게 만든다. 건축을 역동적이고 표현적이며 감정과 은유의 풍부라는 성격의 '파편화된 전체'[37]로 경험하도록 한다.

전시 공간들은 일반적인 전시공간에 비교하여 볼 때 급진적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잃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체의 부조화를 담고 있다. 따라서, "누스바움 하우스, 누스바움 코리도 및 "브리지"는 방문객들에게 그림과 드로잉을 보는 보편적인인 박물관의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반대로 서서히 기울어진 바닥과 평행하지 않은 벽들, 직각을 피하는 창문과 중간 층 들의 조합은 지속적인 초조함을 야기시키며 이는 리베스킨트의 건축개념이 의도하는 것이다. 로딕은 관람자로 하여금 물리적으로 구별 가능한 "불확실하게 만들기"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박물관은 누스바움의 그림과 같이, 조화와 균형 전통적인 개념에 거부를 표시한다. 공격적으로 예리하며, 지그재그 형태의 각도들은 무감각적인 파괴를 상기시키고 화가 자신의 불안정한 영혼을 반영한다.

그 결과 리베스킨트는 미로 미학에 근거하는 드로잉, 상호 연결된 갤러리, 복도, 램프와 브리지의 연속으로서 전시 예술품의 경험을 만들도록 박물관을 구조화하여 "공간적 구성"과 "프로그램적 내용" 간의 변증법적 결합[38]을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공간 대비에 의한 구성

건축개념 적용을 통해 누스바움 박물관이 보여주는 또 다른 특성은 바로 극도의 공간 대비에 의한 구성이다. 1932년 이전의 회화가 전시된 누스바움 하우스와, 나치로부터 피난 시기에 겪은 지평의 감소 및 화가 작업실의 폐쇄 공포증을 복제한 누스바움 코리도는 급격한 대비를 보여준다. 누스바움 하우스가 밝고 수평적 성향이 강하다면, 누스바움 코리도는 어둡고 수직적이다. 하우스의 평면에는 계단실, 부속실 등에 의해 다 초점이 형성되는 반면, 누스바움 코리도는 일직선의 강한 방향성을 갖는다. 누스바움 하우스가 벽면의 돌출과 평면의 변화를 통해 변화감있는 전시 공간을 구성한다면, 누스바움 브리지의 전시공간은 요철의 천정과 슬릿(slit) 형 개구부로 빛의 효과를 갖는다.

특히, 나스바움 하우스와 나스바움 코리도를 통한 2층 관람이 끝나면, 방문객들은 나스바움의 작업의 붕괴된 공간성 즉 도피의 정치적 허망함과 비인간적 억압에 처한 예술의 영적인 투쟁 간의 이중적 대비를 공간을 통해 알게 된다.

(3) 체험 위주의 공간 구성

개념 위주의 공간 구성이 대체로 관념적이며 추상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39], 누스바움 박물관은 관람자가 몸 전체로 공간을 느끼게 만드는 감각적이며 체험적인 구성을 보여준다. 리베스킨트는 자신의 난해한 건물에서 방문객들이 수동적이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박물관은 단순히 작품 전시를 위해서만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리베스킨트는 관람객이 누스바움 박물관의 내부 공간에 들어설 때 감정적이고 물리적 경험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관람자로 하여금 나스바움의 작품을 다감각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들어 박물관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했다.[40]

박물관 공간의 실험적이고 불가해한 성격은 의미, 감정, 기억의 축적에 의한 변형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칼로 잘라 낸 듯한 형태의 창문은 외부 세계를 향한 예상 못한 전망을 제공하고 천장과 바닥에 만들어진 그레이팅은 상층의 빛을 아래 층에 떨어드려 아래 공간의 존재를 확인시킨다. 박물관 내의 무거운 회색 철제 문들은 관람자들을 주춤거리게 만든다.[41] 의도적으로 기울어진 바닥면, 관람을 방해할 정도로 좁은 폭, 3개의 다른 공간에 사용된 다른 재료 등은 의도적인 빛 제어와 함께 단순한 전시 공간 이상의 의미를 체험하도록 만든다.

특히 경직된 볼륨으로 관람자들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누스바움의 삶과 회화를 경험[42]시키는 누스바움 코리도는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공간으로서 누스바움 박물관 공간 체험의 중심으로 작용한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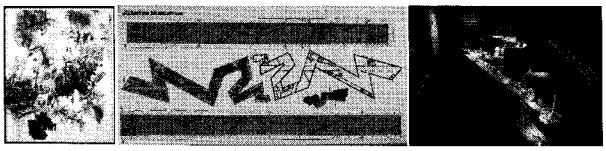
(4) 선형적 구성

'출구 없는 박물관' 개념의 효과적 실현은 선형적 공간 구성을 통해 이루어졌다. 리베스킨트는 펠릭스 누스바움의 쉼 없는 도피와 그 방향에 대한 탐구를 표현하기 위해 상호 연결된 선의 시스템을 사용했다.[44] 이러한 선형 구성은 리베스킨트 작업의 특징 중 하나로서, Chamber Works(1983),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1989), 누스바움 박물관(1994), Line of Fire(2010)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다른 작업에서는 주로 동일 폭의 지그재그 형 구성인 반면, 누스바움 박물관에서는 각기 다른 폭의 선으로 형성된 삼각형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 때, 선의 기하학에 포함되는 공간적 구성의 각 요소들과 프로그램의 내용은 누스바움의 운명적인 부재의 지속성을 상징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홀로코스트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리베스킨트는 누스바움 박물관을 '세계의 무대(Theatrum Mundi, 1985)' 드로잉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했다고 밝힌다.[45] 즉 누스바움의 생애를 둘러싼 벡터들 인 고향 오스나브뤽, 베를린을 향한 희망, 로마에서의 공부, 프랑스

37) Basu, Paul, The Labyrinth Aesthetic on Contemporary Design, Blackwell Publishing, 2007, p.56
38) J. Young, Op. cit., p.53
39) 아이젠만의 '주택 연작' 작업이 대표적이다.
40) Sonja Longolius, Op. cit., p.3
41) Hugh Pearman, Op. cit.
42) J. Young, Op. cit., p.51
43) Daniel Libeskind, Op. cit., 2008, p.83
44) http://www.osnabrueck-net.de/Kultur/Nussbaum/
45) Daniel Libeskind, Op. cit., 2008, p.83

에서의 수감, 브뤼셀로의 피난, 안트워프에서의 은둔과 아우슈비츠로의 강제 추방과 사망 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충돌과 연결 그리고 그 사이의 황폐화된 공간들을 표현함으로써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구성과는 다른 방식의 선형 구성을 보여준다.



<그림 10> 리베스킨트의 선형 구성 예: 좌측부터 드로잉 Theatrum Mundi V(1985),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1989), 설치물 Line of Fire(2010)

3.6. 소결

(1) 분석의 결과

누스바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인문적 배경과 부지와 프로그램의 물리적 배경을 통해 만들어진 '출구 없는 박물관'의 개념은 누스바움 박물관의 주요 부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례를 찾아보기 매우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건축개념 적용을 통한 누스바움 박물관의 주요 특성

건축개념	분야	주요 적용 부분
출구 없는 박물관 (museum without exit)	배치	오스나브뤽, 벨기에, 아우슈비츠 방향에 맞춘 비정형 배치 관련 도시를 연결한 선에 의한 진입도로, 천창의 다양한 위치 누스바움의 생애에 따라 각각 독특한 매스 구성 및 성격 부여
	동선	부분적, 단속적 순환 동선, 의도적인 불편함과 불안감의 제공 빈 벽과 교차를 통해 파편과 비정위의 감각 형성
	공간	규모, 형상, 조도 측면에서 각기 다른 공간의 대비에 의한 구성 누스바움 생애의 충돌, 단절을 반영한 지그재그형의 선형 구성 시각 외에 청각, 촉각 등을 이용한 체험적 공간 성격

(2) 평가와 영향

누스바움의 유작을 소장할 박물관의 디자인은 건축적 사항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윤리적인 것이기도 했다. 독일 제 3 제국에 의해 수행된 유태인 문화의 파괴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누스바움의 그림들은 예술로서 역사를 말해주는 생생한 자료의 중요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누스바움 박물관은 단순히 한 명의 예술가 개인을 위한 미술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다른 한편 리베스킨트 개인적 측면에 있어서도 이 건물은 그동안 자신의 작업이 지을 수 없는 것이거나 심하게 독단적이라고 간주하는 비평가들에 대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스바움 박물관을 통해 도면과 모델에서 실제 건물로의 변환을 최초로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46] 가디안 지의 글랜시(Jonathan Glancey)는 "회화와 벽이 건축적 대화를 나누는 걸작"[47]으로 누스바움 박물관을 평가한다.

오스나브뤽 시 자체만 보더라도 인근의 광산과 강철 산업이 쇠퇴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활동 중심으로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했다. 누스바움 박물관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서 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수십만의 관람객들이 매년 오스나브뤽을 찾는 성과를 얻고 있다. 이것은 나스바움의 예술 작업에 대한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인들의 커다란 관심과 아울러 리베스킨트의 특별한 디자인에 힘입은 바 크다. 역사적으로 유태인 박해가 일어났던 오스나브뤽에서 나스바움 박물관의 건립이 갖는 의미는 오나스브뤽의 시민들이 스스로 자초한 상처에 대한 마지막 치유를 상징한다. 누스바움 박물관은 그 성격에 있어 "잃어버린 역사를 현재에 연결하여 시간과 운명의 되돌릴 수 없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48] 또한 "기존 박물관의 형태, 기능,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공공과 정치 및 역사 영역을 포함시켜 만들어낸 새로운 차원의 건축"[49]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술 비평가들은 나스바움의 작품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설득력을 갖고 있으므로 좀 더 중성적인 공간에 전시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으로 이야기한다.[50] 왜냐하면 누스바움 박물관의 의도적으로 조작된 좁고 불편한 공간이 도리어 예술작품을 평범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건축적 과잉이 예술을 지배하여 누스바움 미술관의 기본적 임무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평가[51]도 제기되고 있다.

4.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리베스킨트가 누스바움 박물관에 적용한 "출구 없는 박물관" 개념은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화가 누스바움의 극적인 생애, 당시의 시대상황 및 부지 상황과 학살된 유태인 작가의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둘째, 리베스킨트는 설정된 개념을 기반으로 건축의 각 부분에 이를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박물관의 일반 관념과 논리를 전복시키는 새로운 박물관의 모습을 만들어냈고 특히, 건물의 배치와 매스 구성, 동선의 구성과

46) Hugh Pearman, Op. cit.

47) Glancey, Jonathan "Right side of the wall", The Guardian, July 27, 1998, p.10

48) Hugh Pearman, Op. cit.

49) Libeskind, The Space of Encounter, Universe Publishing, 2000 p.17

50) Glancey, Jonathan Op. cit.

51) Sirefman, Susanna, Op. cit., p.312

성격 그리고 공간의 구성과 분위기 형성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셋째, '출구 없는 박물관'의 건축개념은 스토리의 건축화 과정을 통해 미로와 같은 동선을 만들어냈고, 공간의 형상, 빛의 조절을 통하여 시각뿐만 아니라 온 몸으로 체험 가능한 감각적인 공간으로 구현되었다.

비록, 건축이 전시물을 압도한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으나, 누스바움 박물관이 단순히 유태인 화가의 작품만을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홀로코스트의 비극을 전달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리베스킨트의 '출구 없는 박물관'의 개념은 박물관의 성격에 적합한 효과적인 건축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Basu, Paul, The Labyrinth Aesthetic on Contemporary Design, Blackwell Publishing, 2007
2. Libeskind, Daniel, Countersign, AD, 1991
3. Libeskind, Daniel. The Space of Encounter T & H, 2001
4. Newhouse, Victoria, Towards a New Museum, The Monacelli Press, 1998
5. Pearman, Hugh, Walls hold back the forgetting, The European, 1998. 7. 27
6. Penz, Radick and Howell, Space in Science, Art and Society, Cambridge, 2004
7. Sirefman, Susanna, Foremed and Forming: Contemporary Museum Architecture, Daedalus, 1999 Summer
8. Skira, Daniel Libeskind and the Contemporary Jewish Museum, Rizzoli, 2008
9. 정인하·김홍수,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 공간개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지 2002. 3
10. 권태일·이동언, '근원적 다양성'으로 본 '접힘의 건축',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4. 10
11. 이도희,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적 사고와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4. 1
12. 임성섭·이호중, 현대건축 공간에 나타난 다성 음악적 비례에 관한 연구, 2005. 2
13. 안지혜·이동언, 메를로-퐁티의 '살'로 본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공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7. 3
14. http://www.daniel-libeskind.com/projects/nussbaum-haus
15. http://www.osnabrueck-net.de/Kultur/Nussbaum/

[논문접수 : 2011. 04. 30]
[1차 심사 : 2011. 05. 20]
[게재확정 : 2011. 06. 10]